

2022년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 심의평

(협력사업자 분야)

<2022년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 공모에 지원한 협력사업자 총 19곳의 사업 계획서와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4인의 심의위원이 협의하여 심의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현장 서류 심의를 통해 총 11곳을 인터뷰 대상단체로 선정하였으며, 3월 29일(화) 최종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의결과, 최종 6곳의 선정자가 협력사업자로 결정되었다.

선정 결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과 의견을 중점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사업 계획이 기존 사업에 기반하고 있으며,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두 번째로는 제안내용이 경기 작가의 시장진출과 미술품 판매 촉진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아트페어 사업계획서의 경우,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판매성고가 기대되었으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접점을 찾기 힘들었다.

기대 효과의 측면에서 예상 판매 작품 수, 매출 등 정량적으로 측정이 어려워 보이는 일부 지원 단체들도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해당 지원단체가 의도한 사업에 대한 정성적 기대 효과-신규 시장 창출, 저변 확대 등-를 함께 고려하여 최종 선정하였음을 밝힌다. 이번 아트경기에 지원해준 모든 사업자에게 감사를 전하며, 추후 이루어질 사업에도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

2022. 3. 29.

심의위원 김영애, 주연화, 이진우, 김나형